



“작가 시각속에 세상사 보여 광주비엔날레 세계적 수준”

하정웅컬렉션 참석차 광주 방문 작가 이우환

점과 선의 작가, 이우환(76)씨는 2시간 넘도록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보면서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온 10여명의 일행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다가 싶더니 일행 중 가장 마지막으로 관람을 끝내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얼굴엔 피곤한 표정을 찾을 수 없었다.

“점 하나를 찍는데 걸린 시간이 60년.” 넓은 캔버스에 점 몇 개만 찍었는데, 그림이 되고 작품 가격만 수 억원에 이르지만 사겠다는 애호가들이 줄을 선 작가,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이 아시아 작가 중 세번째로 회고전을 열어준 인물, 한국이 낳은 세계적 화가 이우환씨 얘기다.

이씨는 6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하정웅컬렉션 ‘이우환’전 참석차 광주를 방문, 마침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제 9회 광주비엔날레 프레오픈 행사에 둘러 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서양화가 김창열·박서보·윤명로씨, 조각가 삼문섭씨 등도 함께했다.

자신의 전시에 인사말조차 사양할 정도로 많은 사람 앞에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지만 정작 인터뷰 동안에는 막힘이 없었다. 후배 작가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를 둘러본 뒤 “광주가 어려운 상황에도 끈질기게 밀고 왔다”면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작가들의 예술적 시각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도 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비엔날레

가 갖는 유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정리하면서 미래 지향적 알맹이를 찾는 게 돋보였으면 하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안 통하는 사람들’과 부대껴온 작가. 그만큼 젊은 후배 작가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씨는 “경쟁적이면서 스피드한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만의 생각과 비판력을 키우는 등 이론적으로 무장해 국제 미술계에서

점·선으로 현대미술 흐름 주도

美 구겐하임서 29 세번째 회고전

시립미술관 12월9일까지 특별전

싸워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팍한 아이디어만으로 한 두번은 관장을 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버틸 수 없다”고도 했다. 고독한 삶에서 깊은 성찰을 길어 올리고, 까다로운 공간에서 더 깊은 울림의 전시를 만든 이우환 작가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조언이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최근 하정웅 명예관장의 작품 기증으로 이우환 작가의 작품 35점을 보유함에 따라 오는 12월 9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사진=최현배기자 choi@

신양파크 호텔에 ‘갤러리 S’ 오픈

11일 ‘숲속의 이야기’ 주제 개관 기념전



이승대작 ‘풍경’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신양파크 호텔에 작은 갤러리가 들어섰다.

신양파크 호텔은 1층 로비에 미술관 ‘갤러리 S’(관장 이명자)를 오픈하고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개관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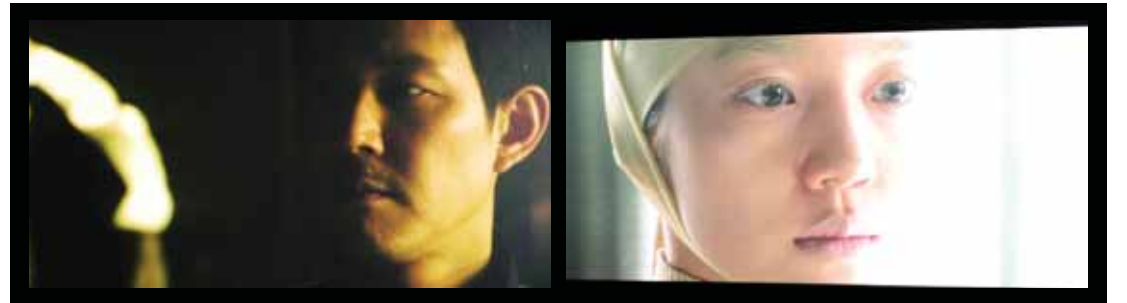
개관 기념전은 ‘숲속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초대된 작가는 올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강운, 홍익대 출신으로 릴른 아트페어 등에 참석한 김석영, 조선대 출신으로 현재 일본 도쿄아트컴퍼니 에이전시장이자 갤러리 츠바키 전속작가인 이철재, 무등미술과대전과 한국화대전 등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승대씨 등 모두 4명이다.

개관식 후에는 에메랄드 홀에서 클래식 공연과 만찬이 이어진다.

신양파크 호텔 나명엽 사장은 “이번에 문을 여는 갤러리가 여향 광주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예술 애호가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작은 음악회 등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8-8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수상작 들여다보니



‘눈 예술상’ 수상작 전준호·문경원 ‘세상의 저편’

“매혹적 미래 우주 구축”

제 9회 광주비엔날레의 ‘눈’(NOON)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준호·문경원씨의 작품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은 영화배우 이정재·임수정이 노 개런티로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이들은 국내 작가로는 20년 만에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가들은 2개 화면으로 이뤄진 영상 작업을 통해 급격한 지구 환경 변화로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미래를 배경삼아 예술의 마지막 모습과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시간을 살아가는 한 남녀의 단편적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삶의 모습과 가능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인간 삶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에초 이들은 광주비엔날레 때 소재원과 송광사의 이미지 등을 빌려와 움직이면서 공연·토론 등이 가능한 작품을 만들려던 구상을 했다가 엄청난 제작비 등을 이유로 ‘세상의 저편’으로 결정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최정화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은 “작가들이 우리 시대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혼란스럽고 매혹적인 미래적 우주를 구축했다”고 평했다.

청년작가상을 받은 모토유키 시타미치가 출품한 작품 ‘다리’는 비엔날레 전시관 2층 복도에 걸려져 부착된 286점의 사진 작품이다. 지난 3월 일어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작가는 자연재해로 일본 전역을 돌며 다리를 촬영했다. 이 다리는 편의를 위해 두 곳을 잇는, 익명의 주민들이 간직한 소박한 꿈과 욕망의 기록이라는 게 작가의 생각이다.



‘눈 예술상’ 수상자인 전준호·문경원씨

‘영예술상’ 수상자 아브라함

작가 아브라함, 광주극장서 작품 제작

시타미치, 사진 286점으로 희망 노래

올해 처음 제정된 ‘영예술상’ 받은 멕시코 출신 조각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는 광주극장에서 ‘자동건축 작업실 : 비효율적 뿔뿔 워크숍 : 극장 뒤 무료 상담’이라는 작품을 내놓았다.

지난 1930년대 지어진 광주극장 사택에서 3주간 머물면서 집으로서 기능이 정지됐던 공간과 그 장소에서 발견된 물건에 노동력을 가하고 공간을 바꿔가는 작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지역 젊은 작가, 사상가, 음악가 등과 끊임없는 워크숍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나갔다.

아브라함은 최근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를 이어 만든 제5회 양현미술상(상금 1억원)도 수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눈 예술상 청년작가상’ 수상작 모토유키 시타미치 ‘다리’

광주 CBS 50주년 기념 1961-2012

- Rain
- Once there was a love
- Que Sera
- The Gypsy
- Sunny
- Susie Q
- Yesterday
- California Dreaming
- La Bamba
- El condo pasa
- Guantanamo
- & more



팝의 전설을 만나다! 그레미 어워드 8회 수상에 빛나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Rain, Once there was a love, Sunny, La Bamba 등 팝의 거장이 들려주는 주옥같은 올드 팝의 향연

JOSE FELICIANO Live in Gwangju

일시 : 2012. 9. 11(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 CBS JOY 커뮤니케이션

